

이번엔 '회고록 책임 전가' 전두환의 꿈수는

### 측근 내세워 법적 책임 회피 재판 지연·쟁점 물타기 의혹

김정호 민변지부장 "책임주체는 전두환... 계약에 말려들면 안돼"

"전두환 비서 민정기씨는 단지 전두환의 심부름꾼이다. 민씨가 썼다면 그건 '전두환 회고록'이 아니라 '민정기 회고록'이다. 전두환 측의 꿈수로 강하게 의심된다."

김정호 변호사(민변 광주전남지부장)는 28일 민정기 전두환 청와대 공보비서관의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 표현한 부분은 사실 내기 쓴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전두환 형사 재판을 지연시키고 전씨에 대한 법적 책임을 벗기 위한 노림수"라고 지적했다.

5·18단체의 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법를 대리인인 김 변호사는 "민정기씨는 법률적으로 전두환씨의 사자(= 심부름꾼)일 뿐이다. 그가 무대 위로(수사 및 재판) 올라서는 순간 전두환 측 계약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경계했다.

그는 이어 "전두환씨보다 나이가 많은 롯데그룹 명예회장 신격호(96)씨도 알츠하이머 부병 중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 휠체어에 의지해 법정에서 출석했다. 나이 등 모든 조건이 신 회장보다 나은 전씨가 법정에서 출석하지 못할 이유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전두환 회고록"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방점을 찍었다. 최소한 주요 내용은 전두환씨가 직접 쓰거나 구술하고, 민정기씨는 전두환씨 입장을 정리하면서 전두환씨의 기본 의도나 주장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오탈자 교정이나 부수적으로 문구 수정 정도의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어 "민정기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를 수사해달라'는 취지로 전두환 호위무사를 자처한 인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저들의 계약에 걸고 말려들어서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시절 공보비서관 민정기(76)씨는 이날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로 표현한 부분은 사실 내가 썼다"고 느닷없는 주장을 폈다.

그는 "조비오 신부, 피터슨 목사 등 일반 사람도 아닌 성직자들이 자꾸 '광주에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거짓말 하길래 그런 표현을 쓴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전두환 법정 나와라" 4번째 소환장

10월1일 다음 공판 앞두고 광주지법 강제구인도 시사

법원이 차매의 한 가지인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형사재판에 불출석한 전두환(87) 전 대통령에게 또 다시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냈다. 지난 5월 첫 소환장 이후 4번째다.

28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전날 이 사건 첫 재판(공판기일)을 마치고 전 전 대통령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전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법정 나오지 않는 것은 불출석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출석을 요구한 것이다.

소환장에는 피고인의 이름, 주거, 죄명, 출석일시, 장소와 함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기재돼있다. 다음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강제 구인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출석은 의무 사항이다.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형사재판에 불출석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다음 공판기일은 10월 1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 심리로 열린다.

재판부는 지난 27일로 예정됐던 첫 재판에 전 전 대통령이 변호인만 내보내고 불출석하는 바람에 공식재판의 첫 단계인 신분 확인 등을 하는 '인정신문'조차 하지 못하고, 재판을 연기했다.

지난 5월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은 그동안 5월과 7월, 8월로 예정된 재판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3차례나 받았지만, 모두 불출석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이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참한데다, 언론과 변호인 등을 통해 밝힌 알츠하이머는 불출석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며 "소환장을 받은 이후 불출석 이유를 밝히고 건강 문제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 학교폭력 급증...초등생이 더 심각

광주시교육청 실태조사

언어폭력 34%·따돌림 17%

지난해 931명→올해 1503명

광주지역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지난해 931명에서 올해는 1503명으로 급증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초등학교 학교폭력 발생 비율이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피해 유형으로는 언어폭력이 다수를 차지했다.

광주시교육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학교폭력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한국교육개발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해 실

시했다.

광주시 초등학교 4학년부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4만2245명을 대상으로 올해 5월 한 달간 이뤄졌으며 응답자는 90.7%인 13만1780명이다.

조사결과 학교폭력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1050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1.1%였다.

전국평균 1.3%보다는 낮지만 지난해 같은 조사 기간 931명(0.7%)보다 572명·61%나 늘어났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1.5%에서 2015년 0.8%, 2016년 0.8%, 2017년 0.7%로 줄었으나 올해 1.1%로 다시 치솟았다.

학교급별 피해응답자는 초등학교가

2.7%, 중학교 0.5%, 고등학교 0.3%였다.

피해 유형으로는 언어폭력이 34%로 가장 많았고, 집단따돌림·괴롭힘 17%, 스토킹 12.2%, 사이버 괴롭힘 10.8% 순이다. 급품갈취(7%), 강제추행·성추행(4.6%), 강제심부름(4.4%)을 당했다는 답변도 많았다.

특히 피해 응답 학생 1503명의 가해자 유형을 살펴보면 이 중 45.6%가 같은 학교 같은 반 학생이었다.

학교 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비율도 73.9%에 달해 학교폭력 대부분이 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교육청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높은 점에 주목하고 순회 전문 상담사 운영을 통한 개인·집단 상담프로그램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청 단위 학교폭력예방 대책 수립·추진 시 실태조사 내용을 분석해 학교 현장 특성에 맞게 보완할 방침이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조사 기간이 지난해보다 길어진 것도 학교폭력 증가 원인 중 하나"라며 "발생 비율이 높은 피해 유형에 대해서는 인성교육·학생 언어문화 개선캠페인 등을 지속해서 실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조사결과는 학교 알리미 홈페이지(www.schoolinfo.go.kr)에서 오는 11월 말 학교별로 공시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침수 피해 복구 돕는 장병들

육군 제31사단 장병과 주민들이 28일 폭우 피해지역인 광주시 남구 주월동 한 아파트에서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 27일 집중호우로 남구지역에서는 상가 91곳, 주택 35채, 차량 34대가 침수되는 등 모두 254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육군 제31사단 장병과 주민들이 28일 폭우 피해지역인 광주시 남구 주월동 한 아파트에서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 27일 집중호우로 남구지역에서는 상가 91곳, 주택 35채, 차량 34대가 침수되는 등 모두 254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부모에 폭력 행사 '폐륜 아들' 잇따라 검거

용돈 문제 등으로 부모를 다치게 한 20대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북부경찰은 어머니를 흉기로 수차례 찌러 다치게 한 혐의(존속상해)로 A(2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7일 오후 6시 20분께 광주시 북구 주택에서 어머니 B(54)씨의 팔과 다리 등을 흉기로 찌른 혐

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과거 조현병(정신분열증) 치료를 받은 A씨는 어머니와 따로 떨어져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으며 평소 아버지가 용돈을 주지 않다가 어머니를 찾아가간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에서 "용돈을 주지 않는 아버지를 협박하기 위해 어머니를 찌렀다"고 진술했다.

앞서 지난 26일 오후 1시께에도 광주시 북구에서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는 C(21)씨가 아버지(51)를 아령(1.5kg)과 의자로 내리쳐 경찰에 인건됐다.

C씨는 2년 전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고모를 데려와 사과하라며 아버지와 딸다툼을 벌이던 중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용희 기자 kimyh@

### '선거법 위반' 함평군수 검찰,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윤형 함평군수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28일 함평군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전남 목포지원에서 열린 이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군수는 2016년 자신의 지적을 홍보하고 현직 군수를 비판해달라는 취지로 지역 모 신문사 창간 지원금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지난 3월 기소됐다. 그해 창간한 이 신문에서는 안모 전 군수에 대한 비판 기사가 수차례 실렸다. /목포·김병관 기자 dss6116@

### 70대女 노출 사진 유포 까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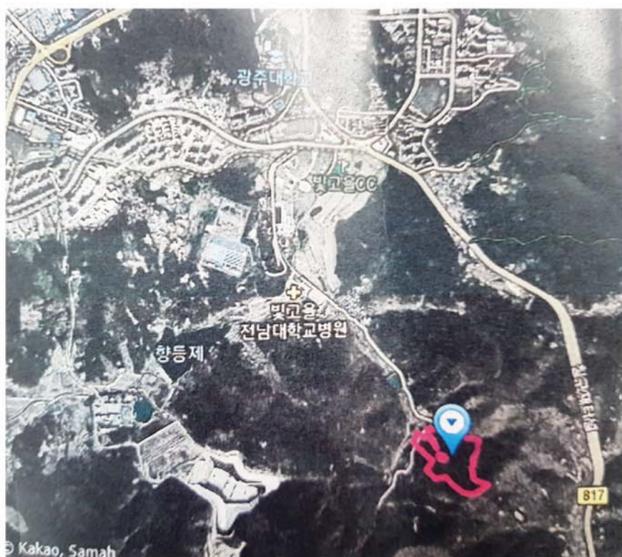


○...70대로 추정되는 여성의 얼굴과 은밀한 신체 부위 등이 노출된 사진을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유포한 40대와 20대가 나란히 철창행.

○...28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된 A(46)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2시 20분께 서울에서 여성 B(70대)씨와 성관계를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B씨의 얼굴 등을 7차례 촬영한 뒤 회원으로 활동하던 음란사이트 2곳에 해당 사진을 게시했다는 것.

○...앞서 C(27)씨가 지난달 22일 인터넷 일간베스트(일베) 저장소에 '박카스 할머니와 성매매를 했다'는 글과 함께 해당 사진을 게시하는 바람에 A씨도 경찰에 붙잡혔는데,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음란사이트에서 회원 등급을 올리기 위해 사진을 게시했고, 일베 회원인 C씨는 다른 회원의 눈길을 끌려고 사진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 /연합뉴스

##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205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2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되고 있음(산64-21번지)
  - 매매 - 평당 17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